

문예진흥원 문학작품 창작지원도서

시집 44종 등 모두 100종 선정…작가들에 150만원씩 지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원장 류石基)은 최근 올해 문학분야 신규사업의 하나인 문학작품창작지원사업의 지원대상도서 100종을 선정, 발표했다.

문예진흥원측은 지난 6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6백여종의 창작집이 지원을 신청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8월24일부터 10월22일까지 2개월동안 20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분야별 심의를 거쳐 42개 출판사의 도서 100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작가 100명에게는 각 150만원씩의 창작지원금이 지급되며, 해당 출판사로부터는 종당 40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 전국의 공공 도서관에 배포하게 된다.

지원을 받게 된 작품집을 분야별로 보면 시 및 시조가 47종으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소설이 21종, 아동문학 18종, 평론 8종, 수필 5종, 희곡 1종인데, 성찬경·오세영·황동규·김선학·이남호(시 및 시조분야), 홍성유·홍기삼·김용성·이재선·정현기·조남현(소설 및 희곡), 장수철·신지식·신현득·이탄·유한근(아동문학), 김양수·신동욱·김치수·최동호(평론 및 수필)씨 등이 분야별 심사를 맡았다.

출판사별로는 창작과비평사가 10종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으며, 문학세계사(9종), 문학과지성사(8종), 문학아카데미, 문학사상사(이상 6종), 세계사, 문학과비평사, 현암사, 아동문예사(이상 4종), 열음사, 민음사, 삼익출판사(이상 3종) 등이 3종 이상씩의 지원을 받게 됐다.

한편, 지난해까지 실시해온 문예지 원고료지원이 폐지된 후 처음 시행된 이번 창작지원도서 선정에 대해 문단 및 출판계에선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 이른바 진보적 성향의 문인 및 출판사가 폐낸 작품집들은 거의 전적으로 배제됐다는 지적이 그 대표적인 경우. 그밖에도 전체 지원신청 도서의 장르별 분포를 '지나치게 산술적으로' 감안한 탓인지 시 및 시조집이 절반을 차지하게 된 장르별 균형상실의 문제라든가, 토론 혹은 합의제가 아닌 '절저한 점수제'에 의한 심사가 초래할지도 모르는 문제 등이 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다음은 이번에 선정된 창작지원도서들.(작가, 책이름, 출판사 순)

시

유안진 「쑥대머리」 문학사상사
이성선 「새벽꽃향기」 문학사상사
정한숙 「잠든 숲속 걸으면」 문학사상사
정한모 「원점에 서서」 문학사상사
김영태 「매혹」 청하
김종철 「오늘이 그날이다」 청하
신동집 「자전」 인문당
정공체 「사람소리」 평야
박태일 「가을 악견산」 문학과지성사
이성복 「그여름의 끝」 문학과지성사
최두석 「성에꽃」 문학과지성사
최재형 「당신에게로 가는 길」 청학
황금찬 「보석의 노래」 청학
이하석 「우리 낯선 사람들」 세계사

지난해까지 실시해온

문예지 원고료 지원이 폐지된 후

올해 처음 시행되는 문예진흥원

창작지원 대상도서로 시집 44종을 비롯해

시조집 3종, 소설집 21종, 아동문학 18종,

평론 8종, 수필 5종, 희곡 1종 등

모두 100종이 선정, 발표됐다.

중앙일보사

김석규 「먼 그대에게」 빛남
윤형근 「사냥꾼의 노래」 열음사
이정주 「문밖에 계시는 아버지」 열음사
임강빈 「조금은 쓸쓸하고 싶다」 창작과비평사
고정희 「저 무덤위의 푸른 잔디」
창작과비평사
김정환 「기차에 대하여」 창작과비평사
신경림 「길」 창작과비평사
송기원 「마음속 붉은 꽃잎」 창작과비평사
박의상 「흔들리는 중심」 문학과비평사
이기철 「내 사랑은 해지는 영토에」
문학과비평사
박재삼 「해와 달의 궤적」 신원문화사
이상희 「잘가라 내 청춘」 민음사

시조

지성찬 「서울에 사는 귀뚜리야」 평야
리태극 「날빛은 저기에」 시민
경규희 「햇살도 저 군무앞에서는」 백상

소설

강용준 「낯설은 방」 명문당
김성동 「집(상)」 형성사
최수철 「고래뱃속에서」 문학사상사
최상규 「타조의 꿈」 인간사
김원일 「늘푸른 소나무 1.2」
문학과지성사
이청준 「자유의 문」 나남
최일남 「그때 말이 있었네」 나남
윤춘택 「형을 위한 미학」 청한

Macintosh를 이용한 Full Page 편집

사보, 잡지, 신문, 단행본, 홍보물

*마루벌은 산마루의 마루, 벌판의 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의 유품을 뜻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일'처럼 여기는
저희 마루벌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완벽하게, 좀 더 보기좋게 만들기 위해 꾸준히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의 창조력을 소중히 생각하는 저희 마루벌은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Full Page편집이라는 새로운 편집 출력방식으로 최소의 인원, 시간, 경비를 가지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드릴것입니다.

믿고 맡기십시오

기획 · 출판 마루벌

MaruBol Printing & Publishing Co.
Tel:701-2391/Fax:701-2395

최첨단 DTP설비를 보유한 저희 마루벌은 기획에서 편집, 인쇄, 제본, 납품까지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 매킨토시 입력 · 편집시스템 20여set, 자체출력기 3대(600~3000dpi) 등을 보유하고 있는바, 별도의 사진제작업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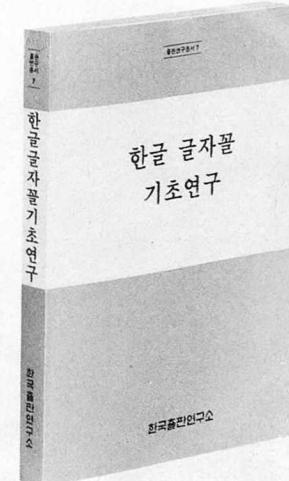
사진과 그래픽, 것을 본문과 함께 출력 할수 있으며, 주로 사보 · 잡지 · 홍보물 · 신문등의 제작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마루벌은

21세기 출판문화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언제나 정성스런 마음으로 출판인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격려, 질책 바랍니다.

우리글 書體연구의 입문서적 집대성

한국출판연구소 엮음 「한글글자꼴 기초연구」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병익)는 김진평 외 8인이 참여하여 연구한, 우리 글자꼴 전반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보고서로 「한글글자꼴 기초연구」를 펴냈다.

모두 8편의 논문과 2편의 자료가 수록돼 있는 이 책은 아직 미개척 분야인 한글글자꼴 연구와 관련해 한글글자꼴의 역사적 고찰에서부터 개발의 실제와 문제점, 개발의 방향, 법적 보호 등에 관한 논문들과 함께 관련 용어 및 문현목록들을 같이 실어 이 분야의 입문서 구실을 하고 있는데, 인쇄·컴퓨터·디자인업계 및 관계당국의 글자꼴 개발방향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록논문 가운데 김진평교수(서울여대 산업디자인과)의 「한글활자체 변천의 사적 연구」는 훈민정음 창제 이래 오늘에 이르는 우리 글자꼴의 변천사를 추적, 그 계보도를 작성함으로써 종래 서지학이나 인쇄학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던 글자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으며, 고 최정호씨(한글자형연구가)의 「서체개발의 실제」는 글자꼴 개발에 평생을 바친 필자의 글자꼴 개발 경험과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홍우동씨(동국전산 대표)의 「한글서체의 문제점과 개발방향」은 인쇄업 종사자로 글자꼴 개발을 담당해온 실무자로서 현행 한글글자꼴이 안고 있는 문제점 점검과 바람직한 서체개발을 위한 절차와 방안 제시를 담고 있다. 한편, 「글자꼴 개발방안」이란 동일한 제목의 두 논문 중 안상수씨(안그라픽스

대표)의 것이 시각적 조형과 가독성의 측면에서 글자꼴의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송현씨(한글기계화추진회장)의 논문은 한글기계화의 측면에서 본 글자꼴 개발문제를 다루고 있어 좋은 상호보완을 이룬다.

이밖에도 컴퓨터에서의 한글사용의 문제점을 글자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한 윤진혁씨(금성통신연구소 연구원)의 「컴퓨터에서의 한글글자꼴 개발」, 올바른 문자정책의 수립과 그에 따른 새 글자꼴의 개발방안을 제시한 문제안씨(한글문화단체 모두모임 사무총장)의 「글자정책과 한글글씨꼴의 개발」, 글자꼴 저작권의 법적 보호문제를 다룬 한승현씨(변호사)의 「Typeface의 보호와 저작권」 등의 논문이 실려 있다.

안상수씨가 정리한 권말자료 「글자꼴관계 문현목록」도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하다.

한국출판연구소 / B5 / 446면 / 비매품

이상문 「황색인」 현암사
유재용 「화신체」 한겨레
이제하 「진눈깨비결혼」 청맥
양귀자 「지구를 색칠하는 페인트공」 살림
유순하 「배반」 열음사
김문수 「어둠 저쪽의 빛」 세계일보사
이문구 「산너머 남촌」 창작과비평사
현기영 「바람타는 섬」 창작과비평사
송기숙 「녹두장군 (1, 2, 3, 4)」
창작과비평사
김향숙 「종이로 만든 집」 문학과비평사
윤후명 「별까지 우리가」 등지
이용범 「그 겨울의 일지」 청사
박영한 「우뚝배미의 사랑」 민음사

희곡
오혜령 「나는 누구입니까?」 문학세계사

아동문학
석용원 「목장의 노래」 보람
조대현 「소리를 먹는 나팔」 현암사
이준연 「종이새가 된 편지」 현암사
조성자 「송이네 여덟식구」 현암사
박숙희 「진주가 된 가리비」 문진당
정채봉 「꽃그늘 환한 물」 문학아카데미
박홍근 「석호의 일기」 삼익출판사
박화목 「고사리소녀」 삼익출판사
송명호 「소년과 집배원아저씨」 삼익출판사
오순택 「초록빛 마을」 아동문예사
허호석 「바람의 발자국」 아동문예사
김영순 「공주와 숯장수」 아동문예사
박상재 「겨울행진곡」 아동문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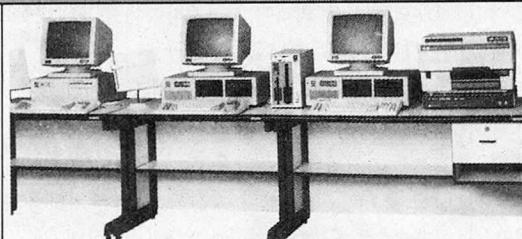
유경환 「털가슴이 고운새」 태양사
박경종 「느티나무가 선 마을」 남광
권영상 「벼려진 땅의 가시나무」 남광
손동인 「하늘에 뜬 돌토끼」 창작과비평사
김여울 「우리들의 거꾸리」 새소년

평론

김주연 「문학과 정신의 힘」
문학과지성사
권오룡 「존재의 변명」 문학과지성사
김철 「잠없는 시대의 꿈」 문학과지성사
남진우 「바벨탑의 언어」 문학과지성사
김종희 「현실과 문학의 상상력」 교음사
김영무 「시의 언어와 삶의 언어」
창작과비평사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김용직 「해방기 한국시문학사」 민음사

수필

송수권 「사랑이 커다랗게 날개를 접고」
문학사상사
지연희 「그리운 사람이 올 것만 같아」
청송
윤모촌 「서울빼꾸기」 미리내
정목일 「깨어있는 자만이 숲을 볼 수 있다」
문학세계사
오창익 「북창」 교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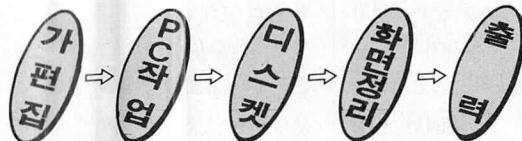


기획/편집/디자인 전문

서비스를 줄이십시오!

PC로 입력하신 원고도
디스켓만 주시면 교정지나 인화지로
처리해 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종구 인현동 2가 231-2
TEL 268-5991/279-2626 FAX 268-5991

전산 및 출력시스템

- 편집기능이 다양하여 화면에서 편집이 가능
- 작업기능이 신속하여 다양한 원고처리 가능
- 서식, 도표, 그래프 등 그래픽 기능과 이미처리 가능
- 한글, 한문, 일어, 영어 등과 서체, 급수 등을 자유선택
- 교정지 (300, 600 LBP)로 교정후 인화지로 출력 가능
- 인화지 출력력이 불필요한 경우 포지필름으로도 출력 가능
- 카다록 등 고급 인쇄물제작 위해 수동식자기 보유

카렌다 / 카다록 / 박스 / 학위논문 / 식순지 / 사보 및 월간지 / 각종 안내장 / 단행본 및 전집류 / 각종 홍보물제작

